

朴 壽 範 議員

“다함께 행복한 대전,
대덕구 소외론에 대하여...”

대덕구 제2선거구

대덕구 제2선거구 출신 박수범의원입니다.

150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박성호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7일 대덕구 구민예산편성위원회들이 대전광역시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5만명을
목표로 구민 동의서를 받아 박성호 시장님을 방문 면담
하였으며,

앞서 정용기 구청장의 기자회견 등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 또한 대덕구 소외론에 대해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대전광역시의회 초선의 햇병아리 의원으로서
아직은 깨어 나온 등지에 대한 애착심으로 대덕구의 불편한
환경과 불합리한 정책의 소외를 바꿔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시장께서는 대덕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분석해보면,

<표 1> 중기지방재정계획 구별 분석

(단위 : 억원)

구 분	계 (A+B)	구 별 (A)						공통 (B)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사업비	37,682	18,872	2,290	3,925	2,107	9,824	726	18,810
총비율	100%	50.1	6.1	10.4	5.6	26.1	1.9	49.9
구비율	-	100%	12.1	20.8	11.2	52.1	3.8	-

사업비 3조 7,682억원 중 일반회계 사업 분야를 보면 대덕구에는 1.9%인 726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공통사업을 관할 자치구별로 재분류를 한다 해도 3.8%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현실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의 소외는

지난날 소외되고 불균형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며, 또한 기형적인 대전발전이 예상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결국 과거의 소외에 이어 미래에도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특정지역에 편중된 정책으로 불균형발전이 지속된다면 종래와 다른 편중된 정책을 써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편중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와 「무지개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서의 대전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르면,

<표 2> 원도심 활성화 사업

원 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및 연도별 계획

- 대상사업 : 총 464건 (완료 289, 추진 162, 준비 13)
 - 단 기 사 업 (359건) : 완료 249건, 추진중 110건
 - 중 · 장기사업 (105건) : 완료 40건, 추진중 52건, 준비 13건
- 사업기간 : 98~2017년 (20,356억원)
 - 2005년까지 투자 : 15,721억원
(국비 1,471, 시비 2,265, 구비 1,173, 공공투자 10,812)
 - 2006년 투자비 : 976억원
(국비 297, 시비 588, 구비 71, 공공투자 20)
 - 2007년도 이후 : 총 사업비 3,659억원
⇒ 공공투자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 투자분
(주거환경개선, 도시개발사업 등)

대상사업 464건에(계획년도 '98년~2017년까지) 원도심
기금사업비(2003년~2006년까지 51억5천7백여만원)와 국·
시·구비, 공공투자를 합쳐 2조 356억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박성호 시장께서 최근 발표한 동구지역에
한정된 「무지개 프로젝트」에 의하면,

<표 3> 무지개 프로젝트 1단계 사업계획(총괄)

○ 전체사업 : 7대 과제 27개 단위사업

연 번	과 제 명	단위사업수
1	청소년 교육·학습여건 개선	7
2	어려운 이웃 자활지원 확대	8
3	아파트단지 주거환경 개선	2
4	근린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3
5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	1
6	지역 도로·교통시설 정비	3
7	지역 활력화 사업 추진	3

○ 소요예산

- 재 원 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기 타
18,226	2,051	13,821	2,018	336

－ 연 도 별

계	2006	2007	2008 이후
18,226	6,013	9,263	2,950

※ 시비 순소요 : 6,334백만원(총 13,821백만원중 기이추진 7,487)

－ 2007년 : 4,094 － 2008년 이후 : 2,240

- － 청소년 교육·학습여건 개선
- － 어려운 이웃 자활지원
- － 아파트단지 주거환경 개선
- － 근린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 － 문화향유프로그램 개발
- － 지역 도로·교통시설 정비
- － 지역 활력화 사업추진 등

총 7건에 1단계 사업에만 182억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특정지역의 개발 및 수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의사는 없습디만, 원도심보다도 주변여건이 더욱 열악한 지역과, 저소득 집단촌으로 형성된 여러 지역이 있음에도 편중 투자해야 하는 이유와,

앞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복안과 특히 대덕구에 어떠한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 4>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총비용 (국비/시비 등)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시 비	민 자	비 고
계	18,931	9,529	6,429	2,973	
1단계 건설	11,345	5,787	4,453	1,105	
2단계 건설	7,586	3,742	1,976	1,868	

<표4-1> 당기순손실(적자)규모판단

□ 2005 회계연도 결산

▪ 결산내역 (재무상태 / 2005. 12. 31현재)

● 자산총계 : 7,999백만원

· 부 채 : 631백만원

· 자산총계 : 7,368백만원

－ 경영성과(2005. 1. 1 ~ 12. 31)

● 총 수 익 : 330백만원

· 총 비 용 : 12,110백만원

· 순 손 실 : 11,780백만원

□ 2006 상반기 가결산

▪ 결산내역 (재무상태 / 2006. 6. 30현재)

● 자산총계 : 12,171백만원

· 부 채 : 1,731백만원

· 자산총계 : 10,440백만원

－ 경영성과(2006. 1. 1 ~ 6. 30)

● 총 수 익 : 3,427백만원

· 총 비 용 : 14,492백만원

· 순 손 실 : 11,065백만원

□ 2006년도 순손실 예상액 : 25,184백만원

도시철도 1·2단계 총 건설비용 1조 8,931억원 중 국비를 제외한 시비와 민자 투입이 총 9,402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비와 민자투입비의 5분의 1은 대전광역시 5개구의 하나인 대덕구민의 혈세이자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2005년도 적자분 117억 8,000만원을 포함 2006년도 적자예상액 251억 8,400만원을 비롯한 매년 적자예상액과 보수비용 또한 지하철이 일부분도 지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덕구민의 부담이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에 의하면 당초계획인 X축 건설이 아닌 순환선으로 노선이 재검토되어 일부지역은 1호선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덕구는 중리 5거리, 오정 5거리만을 경유하는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어 소외받는 지역이 또 다시 소외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은 당초의 X축 건설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울러 전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지역민은 지하철 이용빈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며, 대전시민 임에도 상대적인 수혜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소 시킬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시내버스 노선이라도 반드시 증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5>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 요청내역

○ 총괄내역 (14개노선)

노선신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비마을에서 동부터미널 - 대덕구청 - 시청방향 2. 선비마을에서 신탄진 방향 3. 대화동 1·2공단 경유 둔산동 방향 4. 이현동 및 미호동(대청댐) 5. 장동에서 대전역 6. 비래동(휴플러스 아파트)에서 대전역 7. 송촌정수장 경유노선 신설
노선연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와동 종점인 740번을 신탄진동까지 2. 720번 신탄진고(보훈병원) 경유 3. 704번 신탄진고(보훈병원) 경유 4. 와동 종점인 726번 장동까지 연장 5. 74번 읍내4거리에서 대덕구청 경유 6. 190번의 일부를 190-1번 신설로 오정동 양지 및 신통아파트 경유
배차간격 단축	720번 배차간격 단축(현재 40분에서 20분으로)

다음은 1·2·3·4 산업단지 세수와 환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 6> 1·2·3·4산업단지 기업에서 발생하는 국·시·구세(부과)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06.9.30 현 재	2005년도	2004년도	비 고
총 계		81,163	25,288	30,285	25,590	
시 세	소 계	67,421	20,623	25,382	21,416	
	취 득 세	5,259	1,267	1,823	2,169	
	등 록 세	7,330	1,241	2,521	3,568	
	주 민 세	47,409	15,352	18,240	13,817	
	자 동 차 세	772	184	294	294	
	도시계획세	3,073	1,197	978	898	
	공동시설세	2,087	777	673	637	
	지역개발세	30	6	12	12	
	지방교육세	1,461	599	841	21	
구 세	소 계	12,209	4,352	4,380	3,477	
	재 산 세	4,030	1,582	1,291	1,157	
	사 업 소 세	7,960	2,701	3,022	2,237	
	면 허 세	219	69	67	83	
국 세	농어촌특별세	1,533	313	523	697	

‘69년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1·2산업단지 주변 지역은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주변 환경개선은 기업유치 전략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업유치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나 우수기업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주변 환경개선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대전광역시에서 1·2·3·4산업단지에 부과하여 받아들이는 세액 중 국세, 구세를 제외한 광역시세를 살펴보면,

2004년도 210여억원 2005년도 250여억원, 2006년 9월 현재 200여억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200여억원 이상을 거두어들이면서 지금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세수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환경을 개선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1·2산업단지와 상서, 평촌지역을 이전 또는 재정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과 금고동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 7> 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의 비교표

구 분	폐기물매립장	쓰레기소각장
위 치	유성구 금고동	대덕구 목상동
조 례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예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신일동 환경에너지 사업소 인접지역지원예 관한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예 관한 조례시행규칙	없 음
인접주민 지 원 금 구성재원	1.시의출연금 2.당해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100을 곱한 금액 3.기금운용수익금 4.폐기물관리예 관한조례 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징수한 가산금(반입 수수료외의 10/ 100가산금)	1.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 사업, 육영사업 2.사업소에 연간 반입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총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차 이 점	주민지원금으로 시의출연금, 기금운용수익, 반입가산금 10/100을 편성	시의출연금이나, 기금운용 수익, 반입가산금 10/100을 지원하지 않고 시의 일반 회계로 편입

<표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지역민들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면에서는 동일합니다만, 주민지원 면에서는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동 쓰레기매립장과 달리 목상동 쓰레기소각장 반입료의 10% 가산금은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산금은 쓰레기매립장과 같이 특별회계 또는 주민 지원금으로 전입하여 폐기물 매립장주변의 주민지원과 같이 소각장주변 주민 복리사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분뇨처리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여년 전 도심의 외곽이라 할 수 있는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위생처리장은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대덕구의 제3의 부지에 2011년 완공 목표로 이전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3의 지역으로 선정되어 이전 설치를 한다 해도 또 다른 민원과 다툼현상에 부딪쳐 난항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전 신축에 따르는 예산과 민원발생에 따르는 해결비용을 감안한다면 현 위생처리장이 1차 처리 기능만을 하는 미약함을 감안할 때,

분뇨수집 운반차량의 현대화를 통한 시각개선 효과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 진입로변경 등을 통하여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현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투입 처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관련 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 8> 학교분포현황(2006. 4. 1일자)

()은 학생수,명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130개교(분1) (127,601)	84개교 (67,542)	63개교 (58,618)
동 부 교육청 관 할	동 구	20개교 (15,934)	12개교 (7,920)	10개교(8) (9,004)
	중 구	26개교 (21,180)	14개교 (10,454)	14개교 (15,249)
	대덕구	20개교 (21,046)	12개교 (10,743)	6개교 (5,363)
서 부 교육청 관 할	서 구	37개교(분1) (45,593)	29개교 (27,268)	15개교 (16,191)
	유성구	27개교 (23,848)	17개교 (11,157)	18개교 (12,811)

※ 17개 고등교육기관(대학)중 유일하게 한남대 1개 학교 소재

<표 9> 대전광역시 소재 도서관 분포현황 (구별)

(2006. 11. 14현재)

도서관명	소재지	운영 주체	규모			건설비 (단위 : 백만원)	설립년도
			부지 (㎡)	연면적 (㎡)	좌석수 (석)		
계	15개소		89,020	54,964	10,902		
용운도서관	동구 용운동 389-2	동구 (5)	2,134	2,468	400	1,901	94.11. 8
성남도서관	동구 성남동 193-26		336	541	120	650	04.12.28
판암도서관	동구 판암동 389-2		355	468	85	792	04.12.29
가오도서관	동구 가오동 194		1,890	1,579	447	1,536	96.10.31
문화정보관	동구 가양2동 22-4		5,358	2,923	210	무상임대	01.10.20
한밭도서관	중구 문화동 145-3	시 (1) 교육청 (2)	19,703	22,429	3,576	11,974	89.12.20
대전평생 학습관	중구 대흥동 326-476		2,520	1,419	460	189	61.11.07
대전학생 교육문화원	중구 목동 126		4,500	4,990	1,073	1,004	88.05.20
갈마도서관	서구 갈마동 427-45	서구 (2)	1,488	2,705	800	1,340	94.06.01
가수원도서관	서구 가수원동 656-48		4,887	3,877	800	4,198	00.02.25
유성구도서관	유성구 가정동 37	유성구 (3)	29,063	2,869	665	1,309	94.07.05
유성진잠분관	유성구 원내동 68-6		487	440	117	기존 원내동 사무소 활용	99.10.14
구즉도서관	유성구 송강동 157		4,967	1,496	347	2,624	03.12.15
안산도서관	대덕 법동 284-2	대덕구 (2)	2,523	1,941	602	1,179	94.09.03
신탄진도서관	대덕 신탄진동 150-9		8,809	4,819	1,200	8,127	02.07.12

초·중등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통계상 96% 이상 이
라고 합니다.

위의 학교분포 현황과 도서관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대덕구($10,743 \times 96\% = 10,313$ (중학생)- $5,363$ (고등학생)= $4,950$ 명)
서구 ($27,268 \times 96\% = 26,177$ (중학생)- $16,191$ (고등학생)= $9,986$ 명)의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원거리인 타 구로
통학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타 구로 원거리 통학을 함으로써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과 학습능력 저하, 비용과다의 문제 등이
뒤따르고 있고, 그로 인한 거주인구의 이동 및 인구
감소의 원인과 지역간 교육격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현행 교육정책은
수정되어야 하고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분포 현황을 볼 때 대덕구와 서구 관내에 고등학교
증설이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현행 학교분포 현황에
의해서도 학생수급 조절에 문제가 없다면, 고등학교의
신설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해당지역의 학생들에게 학습기회의
보장과 보충할 수 있는 시설로써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시립도서관 신설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대덕구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대전광역시청 공무원의 거주지 분포현황입니다.

<표 10> 대전광역시 공무원 거주지 분포현황

부 서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기타
총 계	3,206	339	568	1,563	383	283	70
점 유 비	100.0	10.6	17.7	48.8	11.9	8.8	2.2
소 계	1,015	76	167	584	97	78	13
공보·감사관실	54	2	12	30	3	6	1
기 획 관 리 실	139	5	25	91	7	9	2
경 제 과 학 국	104	7	25	57	12	2	1
자 치 행 정 국	181	11	33	96	23	16	2
문 화 체 육 국	61	6	10	37	5	2	1
보건복지여성국	82	8	11	49	7	7	0
환 경 국	79	5	14	42	12	4	2
교 통 국	118	16	12	71	6	12	1
도시건설방재국	114	8	15	68	14	9	0
도시환경사업단	20	0	4	10	3	3	0
소 방 본 부	63	8	6	33	5	8	3
기타부서 소계	2,191	263	401	979	286	205	57

<표 11> 5급 이상 공무원 거주지 분포현황

거 주 지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기타
계		366	17	54	227	46	18	4
직 급 별	정무직	1	-	-	1	-	-	-
	1급	2	-	1	1	-	-	-
	2급	2	-	1	1	-	-	-
	3급	16	3	2	8	2	1	-
	4급	83	-	17	50	11	5	-
	5급	262	14	33	166	33	12	4
분포비율		100%	4.6%	14.8%	62.0%	12.6%	4.9%	1.1%

위의 <표 10>과 <표 11>을 보면 대덕구 거주 공무원은 대전광역시공무원 3,206명중 8.8%인 28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급이상 공무원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66명중 4.9%인 1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덕구에는 거주 공무원 수가 적을뿐더러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의 고위직 공무원은 턱없이 적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소 억측일지는 모르지만 대전에 사는 사람이 호남이나 강원도의 생활환경에 관심이 적은 듯이 특정지역에 대전광역시의 공무원이 편중 거주하기에 정책적인 소외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며,

대덕구의 현실을 볼 때 기업유치 전략보다도 공무원 유치전략을 펼쳐야할 것이라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고위직 공무원 여러분!
부디 대덕구로 이사 오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호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시의회 의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서 경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다소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는 지역 소외론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구성원인 시민은 누구나 고른 혜택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노력과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동등한 배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남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동등한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차이로 인해 차별된 보수나 혜택을 받는다면 시정에 대한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시민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대전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